

일본 IT K-Move 프로그램의 설문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면재*
백석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A Study On Strategic Development Directions Derived from the Survey Analysis of the Japan IT K-Move Program

MyounJae Lee*
Professor, Division of Computer Engineering,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일본 IT 산업으로 진출하려는 한국 청년들의 K-Move 프로그램 참여 실태와 경험을 분석하여, 향후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최근 일본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청년들은 국내 취업의 어려움과 IT 직무 환경의 문제로 인해 일본 취업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일본 IT K-Move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동기, 준비 과정, 어려움, 기대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을 통해 일본어 및 IT 역량 향상, 취업에 대한 자신감 증가, 부모의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요인들이 참가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K-Move 참여는 일본어 실력 향상, 취업 두려움 감소, 학교생활과의 병행 어려움 등에서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 일본 IT, K-Move, K-Move 프로그램 설문, 해외 취업, 일본 취업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articipation status and experiences of Korean youths in the K-Move program as they seek to enter the Japanese IT industry, and to propose directions for future improvement of the program. As Japan faces a growing demand for foreign IT professionals due to its aging population and workforce shortage, Korean youth are increasingly considering employment in Japan as an alternative to Korea's competitive and often stressful job market. Through surveys, the study examines participants' motivations, preparation processes, challenges, and expected outcom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improvements in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and IT skills, reduced anxiety toward employment, and the level of parental support significantly affect participants' experiences.

Key Words : Japan IT, K-Move, Survey on the K-Move Program, Overseas Employment, Employment in Japan.

*본 논문은 2025학년도 백석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교신저자 : 이면재(davidlee@bu.ac.kr)

접수일: 2025년 04월 06일 수정일: 2025년 04월 15일 심사완료일: 2025년 04월 17일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많은 한국 대학생과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IT 분야는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글로벌 인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해 IT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1,2]. 이에 따라 일본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7], 한국 정부 또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Move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K-Move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글로벌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외 취업과 근속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3]. 특히 일본 IT 분야는 참가자 수와 취업 성과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4].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 유사성이 있으며, 한국 청년들에게는 경제적 안정성과 글로벌 커리어 확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 시장으로 여겨진다. 또한 국내 취업 진입장벽의 높음도 일본 IT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5].

특히 일부 청년들은 한국 내 과도한 업무 강도, 불안정한 고용 환경, 낮은 워라밸 등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일본 취업을 선호하기도 한다[6].

하지만 지금까지의 K-Move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프로그램의 전체적 성과 분석이나 정책적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특정 국가와 산업 분야에 국한된 참여 동기 및 참여자의 경험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 IT 분야의 특수성과 한국 청년층의 직업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IT K-Move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참여 동기, 목적, 기대 효과, 참여 중 어려움 등을 분석함으로써, K-Move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들의 실제 경험과 인식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IT 산업과 한국 청년층 사이의 연결 구조를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대학생들이 일본 IT 산업을 선택하는 배경과 동기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K-Move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 취업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 기여 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K-Move 프로그램의 개요 및 운영 현황

K-Move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청년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출범 이후, 다양한 국가와 직종으로 청년 인재를 파견하고 있으며, 일본 IT 분야는 연평균 취업자 수 및 현지 정착률 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 K-Move는 사전 직무교육, 현지 기업 연계, 비자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특히 일본은 지리적·문화적 근접성, 기업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주요 파견 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

2.2 일본 IT 산업의 외국인 인력 수요 확대

일본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특히 IT 산업은 신규 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5].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민간 기업은 외국인 IT 전문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한국은 기술력과 근면성, 문화적 친화성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공급국으로 평가받고 있다[1]. 일본 IT 기업들은 비교적 안정된 직무 환경과 정년 보장, 체계적인 기술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5,14].

2.3 청년층의 해외 취업 동기 및 진로 선택 요인

청년층의 해외 취업 동기는 경제적·직업적 요인뿐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 탐색과 글로벌 경험에 대한 욕구 등 심리사회적 요인까지 포괄한다. 일본 K-Move 참여자의 주요 동기로 “안정적 커리어 경로 확보”[5], “국내보다 나은 근무 환경”[13,14], “해외 문화에 대한 관심”[1] 등을 꼽았다. 이는 단순한 취업의 목적을 넘어서, 삶의 질과 직무 만족도를 고려한 경로 선택임을 시사한다.

또한 K-Move 참여자의 상당수는 국내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고용 불안정, 장시간 노동 문화에 대한 회의로 인해 해외 취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 내 청년 고용의 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되며, 일본과 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로의 진출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2.4 한국 IT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청년층의 이탈

한국의 IT 산업은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동시에 장시간 노동, 임금 대비 업무 강도, 낮은 워라밸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 IT 기업의 근무 환경이 청년들에게 회피 대상이

되는 이유로 “고강도 노동 구조”와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지적했다[6].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위주의 고용 구조는 고용 안정성과 경력 성장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일본을 포함한 해외 취업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 <Table 1>[9-10]은 일본으로 취업한 한국인들의 진출 현황을 보여준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로 인한 비자 발급 중단을 제외한 기간에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이후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5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 연구들은 K-Move 프로그램의 정책 효과(고용률, 정착률 등)[2]나 참가자 만족도에 대한 단편적 분석, 연수기관의 역할[8], 일본 취업의 동향과 한일 채용시장의 차이를 분석[11],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자기분석 실행정도를 파악하는 연구[12], 일본 K-Move사업의 연수기관 분석[14], 일본 IT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고찰[15]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 IT 분야 대학생의 참여 동기 및 어려움, 두려움, 가정 형편에 따른 지원 여부등을 정량적으로 종합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일본 IT K-Move 참여자의 동기, 목적, 어려움, 비교 요인(한국 IT와의 차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지원여부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며, 설문조사와 함께 정책적 시사점까지 도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Table 1> Current Status of South Korean IT Workers in Japan

year	Number of employed persons	Number of IT employees	IT employment rate(%)
2017	1147	623	28.3
2018	1828	836	29.7
2019	2469	1,112	30.5
2020	1220	321	32.6
2021	586	403	34.3
2022	1154	451	35.1
2023	1293	492	37.1

3. 대학생들의 K-Move 사업 참여 실태 분석

3.1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는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천안

B대학의 K-Move 사업 참여 대학생 21명 중에서 응답 21자 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4학년으로 다양한 전공으로 구성되었고 설문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응답자는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었고 남성은 15명, 여성은 6명이었다. IT 전공자는 18명, 일본어 전공자는 1명, 기타 전공자는 2명이었다. 내정 이후에는 기업체 별로 일본어와 IT에 대한 실무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IT 전공자중에서는 8명이 내정된 교육에 참여하였고 IT 비전공자 중에는 2명이 참여하였다.

3.2 설문 문항 구성

설문 문항은 기본 정보, K-Move 참여 전과 후 일본어 IT 및 IT 직장에 대한 인식, 가정환경 및 경제적 배경, 일본 IT 기업 취업을 고려한 이유, K-Move 참여 중 어려웠던 점으로 구성되었다.

성별 및 연령: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파악하여 특정 집단의 K-Move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한다.

가정환경: 가정환경별로 일본 IT K-Move의 참여도와 부모의 지원 정도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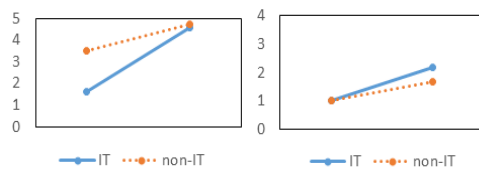
전공: IT 전공자들과 비전공자들 간의 일본어와 IT 능력 향상 정도등을 평가한다.

일본어 및 IT 능력: 일본어 능력과 IT 능력과 K-Move 사업 참여시의 두려움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언어 장벽과 IT 장벽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일본 IT 취업 고려이유와 장애물: 성별 전공 별 일본어 실력 및 IT 실력별로 일본 취업에 대한 이유와 두려움 요소를 분석한다.

3.3 설문조사 분석

[Fig. 1]은 IT 전공자와 IT 비전공자간의 K-Move 사업 시작전과 후의 일본어 능력과 IT 능력을 비교한 것이다. 아예 몰랐음은 0점, 히라카나 가타카나를 읽고 쓸 수 있는 수준은 1점, JLPT N4는 2점, N3는 3점과 같이 계산하였다.



(a) Japanese Language (b) IT
[Fig. 1] Comparison Between Japanese Language and IT Skill Level

IT 전공자가 일본어 실력 향상 폭이 가장 컸고, 비전공자는 일본어 전공자보다 낮은 실력에서 출발했지만 비교적 크게 향상했다. IT 비전공자의 일본어 실력이 높은 것은 일본어 전공자와 영상애니메이션 전공자로서 이미 일본어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높은 실력에서 출발해 상승폭은 적었지만 최종 점수는 IT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Fig. 1)(a)). IT 실력 향상 비교에서 IT 전공자들은 참여 전 평균은 1.6점으로 기초 수준으로 프로그래밍의 문법 정도만 이해하는 수준이었다. 참여 후에는 2.18점으로 실습 경험이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는데 기업의 실무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IT 비전공자는 0.67점이 향상되었는데 IT는 문과나 예술 계통의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실력을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Table 2〉는 K-Move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일본 IT 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전혀 두렵지 않다가 0이고 매우 두렵다가 5로 숫자가 커질수록 두려움이 커진다. K-Move 참여 후에는 전공 여부와 상관없이 두려움이 많이 감소되었다. 오히려 비 IT 전공자가 평균적으로 두려움의 크기가 크게 감소되었다. 이것은 사업 초기에 IT 전공자보다 일본어 실력이 높아서 일본어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것에 비해 기업의 실무 교육으로 IT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기업체와 친숙해진 결과로 판단된다. IT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에서 두려움이 평균 1~2단계 감소하였다.

〈Table 2〉 Comparison of Fear Levels by Academic Major

Major	Before	After
IT	2.88	2.28
non-IT	4.0	2.0

〈Table 3〉은 K-Move 프로그램 참여 전후, 일본 IT 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을 전공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모두 일본어 실력 부족을 가장 두려워하였다. IT 전공자의 경우 일본어 실력 부족을 원인으로 선택한 인원이 참여전 12명에서 15명으로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현지에서 요구하는 일본어 실력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참여 전에는 없었던 외국인 차별을 두려움의 원인으로 선정환 학생이 2명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일본에서 교육생들이 외국인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일본 기업 문화(상명하복, 연공서열 등)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2명 있었다.

〈Table 3〉 Comparison of Fear Causes by Academic Major

Major	Before	After
IT	Japanese skill (12) Adaptation to Corporate Culture (3) Job Demands and Overtime Work(3)	Japanese skill(15)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2) Adaptation to Corporate Culture(1)
non-IT	Japanese skill(3)	Japanese skill(2) Adaptation to Corporate Culture(1)

〈Table 4〉는 부모님의 경제 수준에 따른 K-Move 사업 지원 정도를 파악한다. 부모님의 경제 수준은 매우 안정적(부모님의 지원만으로 충분히 생활가능) 보통(기본 생활비 지원받으며 큰 지출은 직접 부담) 부족함(대부분의 생활비를 직접 부담) 안정적(일정 부분 지원받지만 본인 부담도 있음)으로 구분하였다. 부모의 K-Move 사업의 지원 여부는 긍정적(긍정적이지만 걱정이 있음) 무관심함,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심으로 구분하였다. 〈Table 4〉에서 보듯이 부모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이 많았다. 경제력이 낮을수록 “긍정적이거나 걱정”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고 적극적 지원은 거의 없었다. 보통 이하의 경제 수준에서는 K-Move 사업 참여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Level of K-Move Support by Parents' Economic Status

Level	Positive	Indifference	Active Support
very stable	3	1	4
stable	6	0	1
average	3	1	0
insufficient	2	0	0

〈Table 5〉는 부모와 거주 여부에 따른 K-Move 지원 정도를 비교한 표이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참가자가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에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은 없었다. 이를 통해 부모의 K-Move 지원 정도는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나 소통 빈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관심 비율은 두 그룹 간 큰 차이가 없으므로, 지지

〈Table 5〉 Parental Support for K-Move Based on Co-residence with Parents

Status	Positive	Indifference	Active Support
alone	2	1	0
Living with parents	12	1	5

여부는 함께 사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무관심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6〉은 자녀 수에 따른 부모의 K-Move 지원 정도를 보여준다. 형제가 적을 수록(특히 외동이거나 1남매)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K-Move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형제가 많을수록 자녀 간 자원 분배 또는 걱정 요소가 분산될 수 있어, 지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지만 다자녀 가정에서도 적극적 지원이 확인되었고 무관심 응답이 없었다. 이는 가족 규모가 크더라도 자녀가 참여하는 K-Move 사업에 대한 관심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6〉 K-Move parental support by siblings

Number of Siblings	Positive	Indifference	Active Support
1	11	1	3
2	1	1	1
3	1	0	1

〈Table 7〉은 K-Move 사업 종료 이후 일본 IT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된 원인을 보여준다. 두려움의 대부분은 언어적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를 완화한 주요 요인은 실제 경험과 준비 과정(교육, 연수 등)이었다. 흥미롭게도 일본 기업 문화나 차별 같은 사회적 요소보다 실질적인 능력과 노출 경험이 심리적 두려움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7〉 K-Move Fear Reduction Reasons

Reason	Count
I gained confidence through study abroad/travel	8
I gained closeness and trust with supervisors through pre-training	8
My IT skills improved	2
My Japanese skills improved	2
I had supporters like peers and professors	1

〈Table 8〉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K-Move 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다중선택)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가장 많이 언급된 어려움은 “밤늦게까지 K-Move 관련 수업을 듣느라 힘들었음”으로, 전체 응답 중 1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K-Move 프로그램의 수업이 정규 대학 수업 이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체력적·시간적으로 부담이 컸음을 시

사한다. 그 다음으로 “대학 수업과 병행하는 것이 어려웠음”이라는 응답이 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과제나 수업 참여와 같은 일상적인 학업 활동을 K-Move 준비와 동시에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K-Move 준비로 인해 학점 관리가 힘들었음”이라는 응답도 3건 있었다. 이는 성적 관리와 출석 등 대학 시스템 내에서의 평가 부담이 K-Move 활동과 충돌했음을 나타낸다. 기타 의견으로는 직접 작성한 기타 응답과 K-Move 설명회, 서류 준비 등 활동 전반에 대한 스트레스도 일부 포함되었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시간 부족, 과중한 일정, 학교 측과의 일정 조율 부족 등으로 인해 K-Move 프로그램 준비가 학업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었다고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8〉 Difficulties Faced While Preparing for the K-Move Program(multiple choice)

Reason	Count
Difficulty managing academic credits	3
Training sessions running late into the night	13
Had difficulty balancing with university classes	9
ETC	2
Interview	2
preparing for graduation due to pre-training requirement	1
coordinating K-Move schedules with professors and the university	3

〈Table 9〉는 K-Move 사업 참여로 인해 학교생활(수업, 시험, 과제 등)에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가장 많은 응답은 “수업 시험 과제 등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문제는 없었다”로 14명이 답하였다. 이 결과는 K-Move 프로그램이 일부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일정 조율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반면 일부 응답자들은 “큰 영향은 없었다” 또는 오히려 “학교생활이 더 계획적으로 변했다”고 답하며, K-Move 참여가 긍정적인 학습 태도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도 나타났다.

〈Table 9〉 Influence on university life

Response	Count
Minor difficulties, but there was no problem.	14
Positively influenced	6
Had a significant impact	1

〈Table 10〉은 K-Move를 참여하면서 대학 생활과 관련해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단일 선택)에 관한 응답 결과이다.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일본어 및 IT 공부와 학교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을 때”였다. 이는 K-Move의 직무 및 어학 교육이 학교 수업과 병행되며 학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준다. 복수의 학습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과 체력의 한계를 경험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팀 프로젝트 및 과제 제출 일정과 K-Move 준비가 충돌했을 때”였다. 이는 특히 협업 기반 과제가 많은 IT 전공 학생들이 K-Move 일정을 개인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한다. 또한, “시험 기간과 K-Move 면접 및 일정이 겹쳤을 때”라는 응답도 다수 존재해, 면접과 대학 시험이 동일한 시기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 외에도 일부 학생들은 “학교 친구들과 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꼈을 때”를 선택하며,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교내 관계 단절 및 심리적 거리감도 어려움으로 작용했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K-Move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사 일정과 정서적 경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학교 측의 유연한 일정 조정 및 정서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10〉 The Most Difficult Moment (Single Choice)

Response	Count
When balancing Japanese and IT studies with university	7
When exam periods overlapped with K-Move interviews and schedules	7
When exam periods overlapped with K-Move interviews and schedules	3
Others	2
When preparing for graduation (thesis, internship, etc.) and the K-Move program simultaneously	2

4. K-Move 사업의 개선 방향

4.1 대학생들의 인식 제고 방안

1)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학생들이 K-Move에 대해 조기에 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교 내 진로상담센터와 연계한 정기적 설명회 개최가 필요하다.

2) 해외 IT 취업 성공 사례 공유

선배 또는 기존 취업자들의 실질적인 사례를 소개하여 현실적인 진입 가능성과 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3) 일본 IT 산업에 대한 체계적 이해 제공

단기 강의, 웹 세미나 등을 통해 일본 기업 문화, 노동 환경, 경력 개발 기회를 사전에 교육함으로써 사전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4.2 프로그램 개선 및 확대 방안

1) 전공별 맞춤형 커리큘럼 설계

IT 비전공자를 위한 입문 과정, IT 전공자를 위한 실무 강화 과정 등 다양한 학습 수준을 고려한 맞춤 교육 필요하다.

2) 언어 집중 교육 확대

일본어 실력 부족이 취업 두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으므로, JLPT 기반 단계별 교육 및 회화 중심 교육이 보완되어야 한다.

3) 사전 직무 연수 프로그램 강화, 인턴십 기반 사전 경험 기회를 제공해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현지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 4학년 이전에 충분한 학점 이수

조사 결과 방과후에 진행되는 K-Move 참여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 대학생들의 K-Move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학기당 최대학점 수강을 3학년까지 권장하고 4학년 때에는 졸업에 필요한 수업만을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과 학점 인정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4.3 정부 및 대학의 역할 강화 방안

1) 정규 교육과정과 K-Move 간 일정 조율 제도화

수업, 시험, 과제와 K-Move 연수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K-Move 사업에 대한 일정 조율과 학점 인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K-Move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 재정적 지원 확대

경제적 여건이 취업 기회 격차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학금 또는 무이자 대출 등 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취업 성공 장려금을 입국시 필요한 초기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3) 참여 학생을 위한 정서적 지원 시스템 도입
취업과 진로 불안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 멘토링 시스템 등의 정서적 지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4 기업과의 연계 강화 전략

- 1) 일본 현지 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
특정 기업과의 장기 협약을 통해 안정적 채용 루트를 마련하고, 현지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해야 한다.
- 2) 현장 중심 프로젝트 학습 연계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반영한 과제를 학생들이 수행하도록 하여, 실무 적응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채용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 3) 현지 채용 박람회 및 취업 캠프 운영 확대
일본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 및 캠프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5. 결론 및 추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일본 IT 산업에 진출하려는 한국 대학생들의 K-Move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일본어 및 IT 역량의 향상, 해외 취업에 대한 자신감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또한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언어 장벽, 현지 생활 적응, 학교생활과의 병행 등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도 동시에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Move 프로그램이 단순한 해외 취업 지원을 넘어, 참여자의 역량 강화와 정서적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사전 교육의 질적 강화, 현지 적응 지원 시스템 구축, 참여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방안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보다 다양한 국가와 산업군으로 연구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K-Move 프로그램의 일반화 가능성과 비교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 주체(정부, 민간, 교육기관 등) 간 협력 구조와 정책적 지원 체계에 대한 심층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참여자의 중장기 경력

경로 및 만족도를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K-Move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3 Japan ICT Industry Workforce Demand Report", 2023.
- [2] S.B Kim, "Youth Labor Market and Employment Policies In-depth Study of International Cases: Japan",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KEIS), Vol.3, pp.4-6, 2018.
- [3] T.W Kim and J.Y Choi, "Who is Poorer among Young People?", No.244, pp.6-19, Health and Welfare Forum, 2017.
- [4] S.J Park and Y.Y Yoom, et.al, "'On-site Inspection Report on the Employment Impact Assessment of the K-MOVE Projec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5.
- [5] Y.K Kwon and M.J LEE, "Curriculum Design for Overseas Employment (focused on Japanese IT courses)", Journal of KIOTS, Vol.8, No.1, pp.31-36, 2022.
- [6] Jaehong yoo and Kiyong Om, "Developing Strategies for Youth Overseas Employment Through a Survey of the Overseas Employed: Focusing on the K-Move Program", Vol.13, No.2, pp.369-378(10 pages), 2021.
- [7]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KIET), "Facing a shortage of skilled IT professionals, Japan is increasing its efforts to hire foreign IT talent", KIET Industrial Economy, pp.83, 2023.
- [8] H.Y Kim, "A Case Study on Employment in Japan through K-MOVE of Korean Universities - Focused on the Management and Follow-up of Classes in S University", Japanese literature, Vol.1, No.93, pp.111-127, 2019.
- [9] <https://www.data.go.kr/data/15083272/fileData.do>. (Overseas Employment Statistics by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HRD Korea).
- [1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astering Overseas Employment in I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HRD Korea, 2021. (http://m.worldjob.or.kr/ebook/2021/pdf/ebook_it.pdf).
- [11] H.S Lee, J.H Song, "A Study on the Employment Trend in Japan in the Post-Corona Period", Research on Modern Japanese Literature, no.72, pp.235-256, 2021.
- [12] M.J Kang, "Current Practices and Guidance Strategies for Self-Analysis in Employment Preparation for Japan: Focusing on the K-Move School Training Program" Research in Japanese Studies, Vol.74, pp.143-163, 2025.
- [13] H.Y Kim, "A Case Study of K-MOVE Employment in

Japan from a Korean University – Focusing on S University's Curriculum Operation and Post-Employment Support”, A Case Study of K-MOVE Employment in Japan from a Korean University – Focusing on S University's Curriculum Operation and Post-Employment Support, Vol.83, pp.111-127(17pages), 2019.

- [14] E.Y Kim, “A Study on Successful Employees Through National Overseas Recruitment Grant”, Vol.82, No.8, pp.191-205, 2019.
- [15] Y.S Jeon, “Strategic Review on the Employment of Japanese IT Companies”, Journal of Japanese Culture Studies, Vol.47, No. 47, pp.233-258, 2010.

이 먼 재(MyounJae Lee)

[종신회원]



■ 2009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사물인터넷, 게임, MPEG